

2) 장시의 발달

(1) 장시의 발달과 분포현황

전남지역의 상업은 삼국시대 때부터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백제는 드넓은 평야지대를 배경으로 높은 생산성을 올리고 있었으며, 이로써 중국 및 일본과도 일찍부터 해상을 통한 문화 및 물자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때 도읍의 발달과 더불어 성읍을 중심으로 물자의 교역이 성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학학제법』에 수록되어 있는 「정읍사」는 당시 시장에 간(일설로는 행상에 나선) 남편의 안부를 근심하는 백제 아낙네의 애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작품의 내용에 비추어봐도 정읍을 포함한 백제의 147개의 군·현에 성읍시 또는 향시가 열렸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목·부·군·현 등 정치·경제 중심지에 또는 교통의 요충지 및 화물의 집산지에 향시가 있었다. 이들 향시는 왕복 1일의 거리인 12~16km 마다 설치되어 비록 시장 내에 상설점포는 없어도, 일정 지구의 가로에 다수의 사람이 모여 물물교환을 행하였다고 한다. 다만 장날(개시일)이 정기적으로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상인으로서 개경·동경·서경의 시전상인(市廛商人) 이외에 향시의 시장을 편력하는 행상인이 상당수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향시가 일정한 날에 개시되지 않았을까 추측될 뿐이다. 정기적이었다 할지라도 당시 일반 백성의 생활수준이나 구매력이 극히 낮았음을 상기할 때 개시주기는 길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장시가 거의 없었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장시에 대해서도 금압정책을 썼음을 여러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당시의 조정에서는 장시설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는데, 장이 생기면 농사에 힘쓰지 않고 미풍양속이 흐려지며 도적이 많이 생긴다는 이유 아래 금압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1470년 극심한 흉년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백성들이 도로변에서 행상을 시작하였던 것이 일명 장문이라 불렀고, 이미 상점(시포)까지 갖춘 지방향시가 출현하고 있었다. 본래 조선 초기 이래로 교환경제면에서는 관청과 밀착된 서울의 시전이나 육의전에만 상업행위의 특권이 부여되었지만, 후기에는 오히려 지방의 장시(향시)가 이처럼 크게 성행하여 대체되어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장시는 1545년에 이르러 경상도·충청도 등지로 파급되었다. 이러한 하삼도지역에서의 상품화폐경제의 추세는 1607년 각 지역별로 장시권이 형성되고, 1703년 산골짜기까지 파급되어 전국에 1,000여 개의 지방장시가 개설되었다.

다음에 나타나 있는 18세기 말엽의 『통국문헌비고』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된 향시의 개설수는 경상도가 278개 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라도가 216개 소이다. 그러나 각 도내의 읍수와 비교해볼 때,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장시가 개설된 경상도는 한 마을에 평균 3개 소인데 비하여, 전라도는 평균 4개 소씩 개설되어 장시설립이 단연 우세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세기에 편찬된 『한기요람』에도 역시 경상도가 276개 소로 가장 많이 개설되었고, 뒤이어 전라도 214개 소를 비롯하여 경기 102개 소, 충청도 157개 소, 강원도 68개 소, 황해도 82개 소, 평안도 134개 소, 함경도 28개 소가 분포되었음이 확인된다.

각 문헌에 의거한 장시수

구분 지역	읍 수	시기별 장시수			
		동국문헌비고』 (1770년)	한기요람』 (1808년)	힘원경제지』 (1827년)	증보문헌비고』 (1908년)
경기도	34	101	102	93	102
충청도	53	157	157	158	162
전라도	53	216	214	188	216
경상도	71	278	276	268	283
황해도	23	82	82	109	82
평안도	42	134	134	143	134
강원도	26	68	68	51	68
함경도	14	28	28	42	28
계	316	1,064	1,061	1,052	1,075

출전 : 김대길, 『18·19세기 지방장시에 대한 일고찰』, 392쪽.

한편 지방장시는 각 지역마다 교통의 요충지나 하천 또는 포구를 이용한 해로, 토산물의 산지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시의 존재가 승인된 것은 조선시대 중기의 숙종대로 보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장시의 수가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거래되는 상품의 양과 질 모두 크게 향상되었다. 대표적으로 전라도에서는 명주의 생산이 많아서 전주의 읍내장, 나주의 읍내장, 광주의 부동장, 남원의 읍내장, 광양·강진·남평의 읍내장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거래되었다. 1830년대 개시주기는 대부분이 5일이었으며, 10일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장날 결정은 매순(십간)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남의 연도별 시장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남지역의 시장분포 추이

구 분 연 도	공설시장		사설시장		백화점	슈퍼마켓
	상 설	정 기	일 반	상 가		
1979	16	141	25	3	-	-
1980	16	140	30	5	-	-
1981	13	142	31	6	-	-
1982	16	140	28	6	8	4
1983	16	140	30	6	8	10
1984	15	138	38	6	8	10
1985	15	137	40	6	7	10
1986	11	133	27	-	-	7
1987	11	132	26	-	-	4
1988	10	128	25	-	-	36
1989	10	125	24	1	-	13
1990	11	120	28	1	-	95
1991	11	118	27	-	-	-
1992	11	118	27	-	-	-
1993	11	116	28	-	-	-

출전 : 전라남도, 『전라남도 통계연보』, 1994 ; 통계청, 『토소매 통계조사보고서』, 1994.

(2) 유통산물

전남지역 장시의 발달은 흉년으로 인한 기근 때문에 시작되었다. 이들 장시의 설치지역은 대체로 포구를 중심으로 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거나 해안과 강의 연안 등지였으며, 또 산협에 이르기까지 수운과 상인들의 활동에 의해 상업이 발달하고 있었다. 지방장시의 발달 이후 순천지역에서 생산되었던 토산물과 유통산물은 어떤 종류들로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16 세기에 간행된 『친중동국여지승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천도호부 : 조기, 송어, 농어, 오징어, 문어, 병어, 낙지, 전복, 도루묵(은구어), 굴, 대하, 홍합, 자하(紫鰓), 유자, 대나무, 대화살, 치자, 매실, 생강, 계, 해삼, 미역, 김, 모시, 자기, 표고, 송이버섯, 차, 닥나무, 빵, 옷칠, 석류, 매화, 개암(개), 치자

낙안군 : 송어, 민어, 병어, 오징어, 낙지, 부레(魚鰓), 굴, 새우(대하), 표고버섯, 송이버섯, 유자, 석류, 감, 대나무, 죽전, 치자, 닥나무, 차, 꿀, 백화사(白花蛇), 복령(茯苓), 옷나무, 뽕나무, 유자, 매화, 호도

다음은 『증보문헌비고』와 『힘원경제지』에 나타난 순천지역의 대표적인 장시와 개시일, 유통 산물을 살펴본 것이다.

18세기 초 장시와 유통산물

구분 지역	장시명	소재지	개시일	유통산물
순 천	부내장	관문외	2·7	쌀, 콩, 보리, 면화, 면포, 종이, 목기, 죽제품, 담배, 미투리, 자리, 석류, 수박, 민어, 건어물, 해삼, 소라, 은어, 소금, 김
낙 안	읍내장	관문내	2·7	쌀, 면화, 면포, 명주, 전어, 송어, 소라, 김, 낙제, 새우(대), 토기, 죽제품, 석류, 유자, 배

여기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순천지역 장시는 주로 읍치를 중심으로 한 교통의 요지에 개설되고 있다. 그것은 먼저 장시명을 대부분 읍내장 또는 부내장이라 칭하고 있고, 위치도 소재지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적으로 5일이나 10일 만에 개시되는 지역별 단일장시체계의 형태이다. 지역별로 장시가 가장 많이 개설된 순위는 장흥(9개 소), 순천(8개 소), 강진(8개 소), 해남(7개 소), 나주(6개 소) 순이며 이외에 영암, 보성, 홍양, 광주, 광양, 진도, 무안 등으로 나타난다. 순천지역이 장시 개설수에서 우세한 지역으로 나타난 요인은 교통이 편리하고 선박을 통한 운송체계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한편 유통산물의 경우 예로부터 곡창지대라 불렸던 만큼 단연 우세한 생산물은 미곡류로서 쌀, 보리, 콩 등이며 이외에 면화, 명주, 삼베, 모시 등 식물류가 많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전남지역이 해안가에 인접한 관계로 염전을 비롯해 풍부한 수산물로 민어, 송어, 해삼, 김, 석화, 대합, 전복 등 어조류와 해산물이 각 지역마다 유통되고 있는 점이다. 이밖에 죽제품, 종이, 도자기, 돛자리(왕골), 유자, 대추, 밤 등이 대표적인 산물로 꼽히고 있다.

(3) 장시권

『힘원경제지』에 나타난 1820년대의 순천지역 장시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20년대 순천지역의 장시권

지역 구분	순 천				곡 성			낙 안		
	장시명	피목장	대곡장	부창장	성산장	읍내장	석곡장	섬거장	읍내장	벌교장
개시일	4·9	3·8	2·7	3·8	3·8	5·10	1·6	2·7	4	9

지역 구분	보 성					광 양			
	장시명	해창장	우막등장	읍내장	복내장	조성원장	읍내장	옥곡장	섬거장
개시일	1·6	7	2	4·9	3·6	1·6	4·9	3·8	5·10

앞에 나타난 장시권은 무엇보다도 거리상의 문제가 최우선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형

적 특성을 고려하여 읍의 관할구역을 기본축으로 한 장시장이 먼저 형성되었다. 또한 행정적인 면에서 지역명이 각기 분리된 상태이나 실제 거리나 공간이 인접하여 오히려 생활권에 해당되는 경우, 개시일에 따라 인근 지역 장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다. 특히 각 지역별 읍치를 중심으로 먼저 장시가 서는 것은 중심 소재지이니 만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물은 모두 집산되기 때문에, 동일지역에서 개설되는 어느 장시보다도 규모면에서 대시장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물산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인구밀도도 높기 때문에 정보수집의 차원이나 인간관계에 필요한 경제 외적인 측면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18·19세기에 이르면서 장시의 개설이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또 대시장으로 형성되는데 반하여, 소규모 고립적으로 유지되던 장시들이 일부 폐지되기도 한다. 19세기 초엽에 이르러 전남지역에서 폐지된 장시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의 숫자는 개시일을 나타낸 것이다)

순천 : 수영장(4·9), 착마장(5·10), 성생원장(4·9), 방축두장(1·6), 구만장(5·10)

백야장(4·9), 요원장(3·8), 대곡장(1·6), 도고개장(3·8)

낙안 : 단교장(4·9)

보성 : 동문외장(5·10), 가전장(2·7), 기정장(3·8)

위에서 제시된 장시들은 대부분 주변의 대시장에 흡수되거나 혹은 지역적인 경제여건이나 교통상의 기능 변화, 즉 창(倉)이나 역원, 포구 산업 등의 변화에 부응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는 지방장시의 개시일이 5일장이나 10일장보다는 상설시장화함에 따라 신설, 이설, 분설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4) 정기시장

구승주군은 농업지대로서 상업이 발달되지는 못하였으나 농산물 교역을 많이 하였다. 여수, 광양, 고흥, 벌교 등 해안지대의 포구로부터 해산물 거래도 번성하여 교역거래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층평지』에 따르면 광천, 부유(주암), 괴목, 대곡, 낙수에 시장이 있었다고 하나 개설연대는 알 수 없다.

근대적 시장은 1960년대에 정기시장이 10개 소가 개설되었고, 1970년대까지 총 14개 소의 5일 시장이 개설되었다. 주로 농산물과 농가에서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교환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지역적 여건이 원활치 못하여 1978년부터 월등면 대평리, 외서면 월암리, 낙안면 금산리 시장이 폐쇄되었다. 순천시의 상설시장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설시장 현황

(단위 : 평)

구분 시장명	허가연월일	위 치	면 적	점포수	개시일	비 고
북부시장	1975. 4. 23.	동외동 199-5	1,527.9	162	5·10	
남부시장	1977. 8. 23.	풍덕동 1264	9,022.4	214	2·7	
괴목시장	1964. 10. 1.	황전면 괴목리	2,070	23	4·9	
용림시장	1964. 10. 1.	황전면 선변리	334	17	1·6	
쌍암시장	1964. 10. 1.	쌍암면 서평리	2,588	15	1·6	
주암시장	1964. 10. 1.	주암면 광천리	1,677	23	3·8	
창촌시장	1969. 1. 23.	주암면 창촌리	1,415	5	2·7	
송광시장	1964. 10. 1.	송광면 대곡리	877	20	1·6	
이읍시장	1971. 6. 1.	송광면 이읍리	711	8	5·10	
낙안시장	1965. 2. 17.	낙안면 남내리	512	10	2·7	
별량시장	1964. 10. 1.	별량면 봉림리	2,029	22	3·8	
월등시장	1964. 10. 1.	월등면 대평리	630	18	3·8	1978.11.16 폐쇄
외면시장	1964. 10. 1.	외서면 월암리	356	15	2·7	1978. 이후 폐쇄
금산시장	1972. 3. 31.	낙안면 금산리	409	32	5·10	1980. 6. 3 폐쇄

참고자료

1. 생업활동과 노동형태 2. 농업기술과 농기구

『국史記』.

『國遺事』.

『고려사』.

『체중실록지리지』.

『친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읍지-진라도편』.

閔成基, 『朝鮮農業史研究』, 일조각, 1988.

金容燮, 『朝鮮後期 農業史研究(1)』, 지식산업사.

金容燮, 『朝鮮後期 農業史研究(2)』, 일조각.

주강현, 『북한의 민속학』, 역사비평사, 1989.

金光彦, 『韓國農器具攷』,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이호철, 『통업경제사연구』, 경북대출판부, 1992.

한성대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한국의 농기구』6, 1993.

박대원, 『동기구』, 대원사, 1990.

李春寧, 『李朝農業技術史』, 한국연구원, 1964.

이광린, 『李朝水利史研究』, 한국연구원, 1961.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昇平志』, 1988.
전라남도청, 『천라남도지』, 1993.
李盛雨, 『韓國食生活의 歷史』, 수학사, 1993.
李盛雨, 『韓國食品社會史』, 敎文社, 1993.
심우성 감수, 『조선의 재래농구』, 한국무속박물관, 1995.

3. 장서관행과 상거래풍속

김대길, 『18·19세기 지방장시에 대한 일고찰-전라도지방을 중심으로-』, 김용덕박사 정년기념사학
논총』, 1988.
오영모, 『이조 도시의 사회경제구조 분석-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시장권 형성과정-』, 천북대 논문집
인문사회과학집』, 1973.
오영모, 『이조의 육운 조운에 관한 연구-호남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1979.
전라남도, 『천라남도 통계연보』, 1994.